

# 한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안 탐색

영국의 정부소통청(GCS)과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권예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임연구위원\*\*

**조아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이지영** 호주 캔버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지선** 서강대학교 미디어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편미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후연구원\*\*\*\*\*

**윤성인** 서강대학교 미디어융합연구소 연구원\*\*\*\*\*

이 연구는 한국 및 영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살펴본 뒤, 한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와 한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영국의 정부소통청(GCS)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직 구축, 프로세스 정교화 등을 통해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일관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지속성보다는 기관의 소속 변경, 폐지, 신설, 업무 축소 및 확대가 정권교체 등에 따라 반복됐다. 공익광고는 주로 메시지 연구 및 효과 중심, 정부광고는 제도의 개선 방향, 국가브랜드는 2002년 월드컵이나 2010년 이후 한류 급부상 시기 등 시기별로 연구관심이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진단하며, 일관된 방향성 필요, 충분한 예산과 우수전문인력 배치 노력, 프로세스 차원에서의 매뉴얼 구축, 컨설팅 역할 수행, 데이터 기반 운영 필요,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필수, 공공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 마련,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핵심어:** 공공 커뮤니케이션, 공익광고, 정부광고, 국가브랜드, 국가이미지

---

\* 이 논문은 2021년에 수행했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보고서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입니다.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yeji@kobaco.co.kr,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ahracho0805@gmail.com

\*\*\*\* jee.lee@canberra.edu.au

\*\*\*\*\* eisophia@sogang.ac.kr

\*\*\*\*\* soylatte91@naver.com

\*\*\*\*\* yunsaint@daum.net

# 사회불안감이 뉴스 이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

## 재난 뉴스 이용량의 매개효과\*

김국주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김수명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김정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본 연구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 뉴스 이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재난 뉴스 이용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 불안감, 재난 뉴스 이용량이 과몰입과 같은 뉴스 이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만 19~64세 국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 불안감, 뉴스 이용량, 뉴스 과몰입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불안감이 뉴스 과몰입 양상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으며, 재난 뉴스 이용량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 상황에서 뉴스의 과도한 소비가 불안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뉴스 과몰입을 줄이고자 하는 사용자들과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사회 불안감, 미디어 의존 이론, 재난 뉴스 이용량, 뉴스 과몰입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3A2A02089938).

\*\* day1216@paran.com, 제1저자

\*\*\* smkim@sogang.ac.kr

\*\*\*\* junghyunk@sogang.ac.kr, 교신 저자

#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성별화된 재현 이미지에 대한 고찰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은영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함승경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백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정사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경쟁적인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주요한 장르이다. 매체의 가시성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몸은 성별화되어 재현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크게 흥행했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미디어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1~3회의 키프레임을 추출하여 샷 사이즈를 분석하고, 그 중 클로즈업과 버스트샷에 나타난 출연자들의 표정을 애저(AZURE)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 곡에 사용되는 샷 사이즈는 성별에 따라 모든 샷 사이즈의 활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 출연자에게는 클로즈업과 웨이트샷, 여성 출연자에게는 버스트샷과 풀샷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표정 분석 결과 남성 출연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멸과 공포의 표정을, 여성 출연자들은 유인가가 없는 놀람 표정을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출연자들이 남성 출연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현되고 대상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감정 표현은 자제되는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감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함을 보여준다. 이는 여전히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어:** 오디션 프로그램, 재현, 성별화, 샷 사이즈, 얼굴 표정

---

\* 이 논문은 현대홈쇼핑 후원 한국방송학회 2021년도 신진학자 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 eykim1508@gmail.com, 제1저자

\*\*\* hamseungkyung@gmail.com, 공동저자

\*\*\*\* gybaek@ewhain.net, 공동저자

\*\*\*\*\* egofatum@gmail.com, 교신저자

# 2030세대 이용자들의 딥페이크(Deepfake) 기술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벤야민의 기술복제, 정치의 심미화 및 예술의 정치화 사유를  
중심으로

김지현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수료\*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2030세대 이용자들의 딥페이크 기술 경험에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딥페이크 기술 사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의 정치화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로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아우라 붕괴 논의에서 파생된 ‘아우라 변형’의 논의들을 재검토하고, 정치의 심미화, 예술의 정치화 사유를 토대로 딥페이크 사례의 쟁점을 탐색하였다.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해 연구참여자들의 딥페이크 기술 경험을 통한 정치의 심미화와 유화·오락을 통한 예술의 정치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술 경험은 제작 및 이용 경험으로 나타났고, 정치의 심미화 사례는 허위정보와 신뢰성, 사회적·윤리적 문제, 상업적 기만을 통해 나타났다. 유화·오락을 통한 예술의 정치화 사례는 적극적 이용과 신뢰성 회복, 윤리적·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딥페이크 기술 경험과 인식 사례에 접근하여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계기 창출에 있다.

**핵심어:** 딥페이크, 아우라 변형, 정치의 심미화, 예술의 정치화, 유화·오락

---

\* jh915@cau.ac.kr

\*\* jskang1@cau.ac.kr, 교신 저자

# 재난보도 영상과 이미지 프레임에 나타난 국가 불평등 탐색

비전 트랜스포머(Vision Transformer)를 활용한 KBS  
<세계는 지금> 영상 분석\*

이문혁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수료\*\*

김시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신동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부생\*\*\*\*

이중혁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본 연구는 영상 중심으로 국제 재난보도의 실태를 분석해 국가적 불평등을 재조명하고, 비전 트랜스포머(Vision Transformer, ViT)를 바탕으로 이미지 자동 분류기를 개발 및 적용해 보았다. 분석 대상은 KBS의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영상 1,150건(2019년11월~2023년10월)과 이 가운데 재난 관련 영상 236건이었다. 연구진은 수집된 영상 속 국가를 분류하고,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라 103개국의 경제사회적 개발 수준을 측정했다. 또한, 연구진은 재난 영상으로부터 키프레임 25,317개를 추출해 인적 피해(human\_damage)와 건물 피해(infrastructure)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영상 단위의 분석 결과, 북미와 유럽의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나 분쟁-갈등 당사국일수록 보도가 많이 된(영상이 많은) 점을 확인했다. 반면,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보도에서는 재난 영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뉴스에서 국가의 개발 수준에 따라 양적 불평등과 질적 편향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프레임 단위의 분석에서는 저개발 국가일수록 재난 보도 영상에서 인적 피해 이미지가 많게 나타났다. 피해자 모습을 여과 없이 담은 자극적 영상 구성을 통해 재난에 대한 차분한 이해보다 감정을 유발하는 선정적 보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피해자 보호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재난보도 규범에 어긋난 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수전 손태그(Susan Sontag)의 지적대로, 이러한 보도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일상적

---

\* 논문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dalvitt@gmail.com

\*\*\* rlatldms2002@naver.com

\*\*\*\* tlsehdgh4162@naver.com

\*\*\*\*\* jonghghh@khu.ac.kr, 교신저자

인 소비를 통해 냉소와 무감각을 확산하고 실천적 참여를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재난보도, 타인의 고통, 이미지, 딥러닝, 비전 트랜스포머(Vision Transformer, ViT)

## 1. 서론

미국의 문예평론가 손태그(Sontag, 2003/2004)는 저서 〈타인의 고통〉에서 대중들이 외국의 전쟁과 재난 이미지를 쉽게 접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무더지며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뉴스 소비 현상을 비판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내전, 분쟁, 지진, 쓰나미, 가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TV는 이런 장면을 자극적으로 전달한다. 시청자는 이러한 TV 영상에 익숙해졌을 뿐 아니라 더 자극적 장면을 찾는 관음증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먼 외국의 고통에 잠시나마 연민을 느끼더라도 곧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참여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국제보도의 문제는 그동안의 저널리즘 연구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AP, 로이터(Reuters), AFP 등 주요 통신사 중심으로 서구 강대국 중심의 양적 불평등과 질적 편향이 많은 연구에서 지적돼 왔다. 1970년대 신국제정보질서운동(New World Information Order, NWIO)과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 발달 및 제3세계 통신사 활동이 나타났지만, 경제사회적 개발 수준이 높은 북미와 유럽 국가 및 강대국 중심의 국제뉴스의 편향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김성해·유용민·심영섭, 2011).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목소리는 국제 공론장에 소개되지 않을뿐더러, 분쟁이나 재난 등 부정적인 사건이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것이다. 제3세계 보도의 프레임이 과거 열대성(tropicality)과 발전(development) 중심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변화했다는 분석도 있다(Bankoff, 2001). 제3세계의 이슈를 분쟁과 재난 중심으로 보도하며, 이들 국가가 사회 안전과 국민 보호에 취약하며 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뉴스에서 국가별 재난 보도의 성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

# 학교폭력 경험과 드라마적 재현에 관한 수용자 인식 연구

##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대학생 감상평을 중심으로

정영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강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이슈와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해 수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학생들의 드라마 감상평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용자들은 한국에서 학교폭력 논의는 활발하나 사회적 문제로서보다는 사건으로만 인식되어 유명인의 사례에만 관심이 집중되며, 기성세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수용자들은 학교폭력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이유로 그에 대한 기성세대의 낮은 감수성을 지적했다. 대중문화의 주 소재로 부상한 이유로는 학교폭력을 실제 경험한 새로운 세대 등장과 웹툰의 부상, OTT 플랫폼 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대한 시청자의 기호 발달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대중문화의 주 소재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여 20대 안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글로리>의 학교폭력 재현에 대해서는 소위 '떡밥'이 깔끔하게 회수되어 완성도는 높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기득권층 가해자-가난한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재현한 것은 실제 학교폭력 발생 상황과 다르며, 그러한 재현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글로리>에 대한 수용자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을 실제 경험하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재하는 민감한 소재를 콘텐츠로 만들 때 유의할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핵심어:** OTT 플랫폼, 수용자 분석, 감상문 분석, <더 글로리>, 학교폭력 소재

---

\* yeongsol@hanmail.net

# TV 뉴스 중이용자의 뉴스 이용과 뉴스 품질 인식

**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배진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나미수**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초점 집단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TV 뉴스 중이용자의 뉴스 이용과 뉴스 품질 인식을 분석했다. 먼저 TV 뉴스 중이용자의 뉴스 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응답자들은 개별적으로 습관화된 이용 양상을 보였다. 둘째, 응답자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생산하는 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뉴스 생산자로는 지상파 방송사를, 뉴스 형태로는 영상 콘텐츠를 중심에 두는 경향이 컸다. 셋째, 응답자들은 균형 있는 뉴스 소비를 위해 자신만의 뉴스 채널과 프로그램 시청목록을 구성하는 한편 뉴스 품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감정적 이유로 특정 채널과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다음으로 TV 뉴스 중이용자의 뉴스 품질 인식을 살펴본 결과 첫째, 정확성과 팩트체크를 동일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뉴스 품질 요소로 인식했다. 둘째, 인터뷰 참가자들은 뉴스 품질의 또 다른 주요 요소로 공정성을 언급했으며, 양적 균형과 정보원의 다양성 차원에서 공정성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셋째, 심층성 역시 뉴스 품질의 주요 요소로 꼽혔으며, 심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뉴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 공정성, 심층성만큼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신속성과 전문성도 뉴스 품질의 주요 요소로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뉴스 이용이 삶의 일부로 습관화된 충성적 뉴스 이용자군의 존재, 뉴스 중이용자의 뉴스 품질 인식과 그것이 뉴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 뉴스 이용자를 위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TV 뉴스 중이용자, 뉴스 품질, 정확성, 공정성, 심층성

---

\* trustmejy@naver.com, 주저자

\*\* jinabae.rosa@kongju.ac.kr, 교신저자

\*\*\* misuna@hanmail.net



# 방송사의 자연도태 징후

## 편성의 양극화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위기를 중심으로

조아라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로 나타난, 프로그램 장르/포맷의 양극화와 쓸림현상, 제작 프로그램 수 축소, 재방송 비율 급증 현상은 방송사가 자연도태 과정에 진입했음을 함의한다. 이는 자력으로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 조달 역량의 부족, 방송의 실제 주시청층과 방송사가 유입을 희망하는 시청층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편성 전략의 딜레마에서 비롯된다. 문제의 본질은 글로벌 OTT 중심의 생태계 구축 그리고 협소한 한국 내수시장 규모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방송시장은 글로벌 OTT 생태계가 구축한 게임의 규칙에 근거하여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방송사의 규모로는 OTT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경쟁에서 패배한 방송사는 각자도생의 생존 게임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방송사의 기능 축소와 편성의 양극화 및 쓸림현상이 초래되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방송사의 자연도태 징후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최선의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기준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선의 편성 전략에 함몰되어 있다. 주시청층과 콘텐츠 간의 괴리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방송사의 자연도태 과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A급 방송사가 내수시장에서 적자생존이 가능한 새로운 메커니즘 디자인이 시급하다.

**핵심어:** 자연도태, 편성 양극화, 적자생존, 생태계 경쟁, 내수 시장의 함정

---

\* ahracho0805@gmail.com

\*\* rohdah@hanmail.net, 교신저자

# 2030 여성들의 예능프로그램 시청과 밈(Meme) 문화 참여 경험을 통한 ‘여성-되기’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의미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2030 여성들의 예능프로그램 시청과 인터넷 밈 문화의 생산 및 참여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여성-되기 실천이 가능한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론적 논의로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의 여성-되기의 철학적 접근법과 여성주의 관점으로 확장한 클레어 콜브룩과 로지 브라이도티의 작업을 참조하여 현대 사회에서 여성-되기의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밈 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SNS 이용자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 이후 기존 예능프로그램과 여성 출연자의 역할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인식이 생겼다. 이를 통해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수용자로 변화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향유하는 인터넷 밈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담론을 전복시키는 탈주선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밈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문화적 현상을 재해석하고,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재구성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여성 중심 예능프로그램 시청과 인터넷 밈 향유를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생성하고자 하는 시도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양한 실천적 활동으로의 확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되기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여성-되기, 예능프로그램, 밈(Meme), 2030 여성, 밈 문화

---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dmlal33@naver.com, 주저자

\*\*\* jskang1@cau.ac.kr, 교신저자